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Library Policy for the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이 정 연(Jungyeoun Lee)**

초 록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도서관현장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인 사업성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도서관 등의 시설 건립 중심과 비전문적인 순회사서로 유지되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와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공공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하여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대체자료 양적 확산 위주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이 도입되어 각 영역별 통합조정과 전문성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 신설과 그 활동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of culture welfare in libraries for the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s as a conclusion. Research analyzed organizational tasks and policies f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anning Group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and the policies for libraries. First, library service for alienated class was centered in short term period projects. Second, it is hardware oriented such as building small libraries, places for disabled person, multi-cultural libraries. Due to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ies for the groups with alienated information, and lack of public supportive policies for private library for the disabled, developing cooperative system is difficult. Third, we revealed that policies for quantitative production of alternative material were achieved. So, this study suggested professional policy in integrative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domain and creation of a separate welfare library policy department and its activity.

키워드: 도서관 정책, 문화복지, 정보소외계층, 정보 취약계층, 문화복지 정책, 도서관 소외계층
library policy, culture welfare, alienated information groups, social welfare policy,
library service, disabled people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1년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jyonlee@kornu.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5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6월 10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2006년 도서관법에 '지식정보격차해소' 조항 신설과 법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 농어촌 주민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로 창의적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문화복지'라는 사회적 변화가 도서관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등한 혜택의 제공받을 기회가 제한된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도서관계에서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다문화서비스, 작은도서관 진흥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5년간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과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문화의 터전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 조항이 신설된 2006년 도서관법 이후의 소외계층에

관한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업무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정책백서에 나타나 있는 도서관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0년과 2011년 도서관정책은 2011년 2월에 시행되었던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업무보고를 참조하였다. 둘째, 도서관 정책을 실행부서의 조직, 예산 및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조직과 업무를 조사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연보(2006년-2009년)를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업무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서관 현장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서비스는 2009년 전국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문화복지와 도서관

2.1 소외계층과 문화복지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가적인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가 제한된 계층이다. 이들은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으로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을 통해 경제적인 빈곤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사회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로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차원에서 주류사회에서 차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고 복지, 고용, 교육

등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복지(culture welfare)는 학계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념과 이해의 사회적인 합의 없이 1980년대에 정책 분야에서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출발하였는데 초기에 소수 약자의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해결에서 전반적인 생활상의 욕구 충족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확대에 문화적인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소외계층의 보호, 부의 재분배 등에 관심을 가졌으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회적 잠재력의 극대화가 사회복지의 근본이념이므로 문화적인 삶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최종혁 등 2010). 그러나 복지적 측면의 문화복지와 문화적 측면의 그 개념은 약간 다르게 해석된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활동이 상위개념이고 서비스의 영역 중에서 하나가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전문가들은 문화복지를 문화가 중심이 되어 순수문화적 개념에서 생활문화로서의 문화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최종혁 등 2009).

2.2 도서관의 문화복지

지금까지 도서관에서의 문화복지에 관한 개

념과 이론도 학계의 논의와 협의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정책에 언급되면서 도서관의 문화복지가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서관법에 명시된 의미해석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문화복지의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접근과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 취약계층은 정보소외계층으로 보고 정보 접근에 취약한 이들을 명명하는데 이들은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여 활용하는데 불평등한 상황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소외계층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는 전 인구의 4.9%(보건복지부 2010), 고령자통계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계층은 11%(보건복지부 2009),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보건복지부 2009)이므로 전체 인구의 19%에 이른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별 정보격차는 사회의 계층별 불평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료의 제공, 접근성 확충,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도서관에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문화복지 정책이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전반을 의미한다.

3. 문화복지를 위한 도서관 정책

3.1 도서관 정책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조직과 업무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조직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조직은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진흥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화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도서관정책과의 도서관관련 법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련(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포함)이 있으며, 도서관진흥팀에서는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자료접근, 이용격차해소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설립 육성 지원업무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산하기관이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기준 및 지침의 제정, 장애인 서비스를 위

한 점자, 녹음, 확대, 수화, 전자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직원의 전문직원 교육 및 연수,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운영 평가 및 보상,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장애인용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서비스 정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임하고 있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부분적인 업무는 있으나 소외계층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단위 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3.2 문화복지 정책 및 예산

도서관 문화복지 정책 및 예산을 도서관 정책

〈표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복지 관련 업무

조직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팀
업무	종합계획 수립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도지원
	도서관 종류, 부처별 조정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지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운영	도서관정보화정책 수립 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지원	부처간 도서관정보화 협력망 관리체계
	도서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 협력망 관리체계
	도서관 시설, 자료, 사서직원 배치	도서관 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 수립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참여, 자원봉사
	도서관운영실태 평가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자료접근, 이용격차해소
	도서관 관련 통계시스템 평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립 육성지원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그 밖에 다른 과, 팀의 주관외의 사항	

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정책 및 예산을 분석하였다. 분석 근거는 문화정책백서(2006년-2009)와 국립중앙도서관 연보(2006-2009),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1년 업무보고이다.

〈표 2〉에 나타난 도서관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수행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병영도서관에 도서 기증 등의 자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련한 정책 영역이 개발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

터의 설립으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도서관법의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자료를 위한 디지털 납본제, 저작권보상금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대체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법적인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 영역의 장애인서비스에서 전 영역의 장애인으로 개념 정립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서비스, 농산어촌 취약지역 순회사서 등의 정보소외계층 영역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여섯째,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독서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 2〉 도서관 문화복지(정보소외계층) 정책 및 예산 분석

연도	정책기본방향	정책세부내용
2006	도서관법 개정 국가지식정보문화 기반조성	-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 DB 구축(8만건) - 공공도서관/시각장애인도서관 KORMARC -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구축: 대학생 학습서(2005: 709책, 2006: 2,985책) - 병영도서관 도서 기증
	장애인 및 이용자서비스개선	예산 473백만원
2007	도서관법 개정(시행)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신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지식정보격차해소로 사회통합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신설(국중 산하)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개발 -- 국내외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실태조사 --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 수행 --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 -- 대체자료 개발, 해외 국제표준 동향 조사 등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건립 확충
	장애인 및 이용자서비스개선	예산 473백만원
2008	도서관 정보인프라 고도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종합계획, 제도개선, 지역대표도서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8대 정책 영역 (3. 지식정보격차해소: 도서관서비스 확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도서관법 개정(안) - 2008. 11월 국회 제출 -- 디지털파일 납본(특수자료), 저작권보상금의 보조금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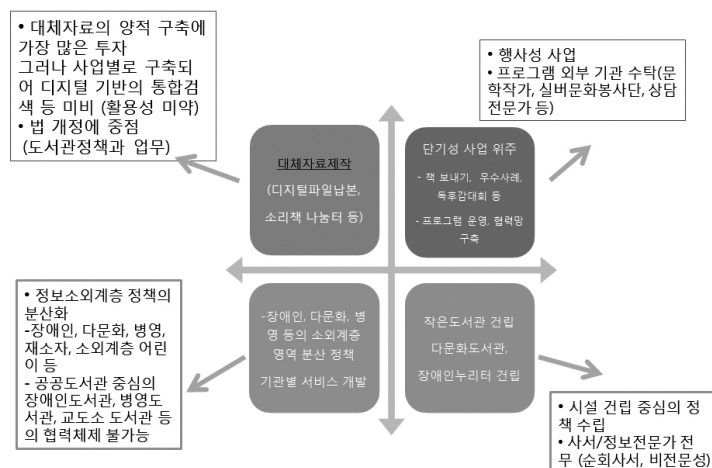
연도	정책기본방향	정책세부내용
2008	도서관 정보인프라 고도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종합계획, 제도개선, 지역대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대체자료개발 지원연구) -- 점자도서 60종, 청각장애수화영상도서 20종 제작 -- 전국 공공/특수학교 보급 -- 장애인정보누리터 설치 -- 전국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협력망 실무연구회 -- 책바다서비스 택배비 지원 --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우수사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육원, 오지 학교 등 정보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책 읽기 사업
	장애인 및 이용자서비스개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예산(296백만원 + 490백만원): 총 786백만원
2009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문학도서보급(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교정 시설, 군부대 등) -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 사업(창작여건 개선) - 농산어촌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선정 - 도서관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소외계층 어린이 책읽기사업 확대운영 - 다문화가정 콘텐츠 개발(영어, 베트남어) -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 -- 대체자료제작(2009, 460종) -- DAISY 저작툴 개발 -- 공공 및 장애인도서관 현장 조사 --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확산 보조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보급(5개관) 지원사업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담당자 교육 및 협력 워크숍 -- 제2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제2회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예산 640백만원
2010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차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취약지역도서관 순회사서(77명) - 다문화자료실 설치,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파일 납본(15억) -- 이용자 신청도서 제작, 중복방지협업체, 자료심의위원회, 대체 자료제작위원회 등 -- 대체자료 통합검색시스템 -- 민간 점자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설치 지원,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협의회 운영, 무료택배, 도우미 전화 --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확산 -- 소리책나눔터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예산 2,204백만원
2011계획	창의적 문화복지 구현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농어촌 학교, 작은도서관 등 취약 계층 독서활동 지원

연도	정책기본방향	정책세부내용
2011계획	창의적 문화복지 구현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 어르신들 '책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 병영독서제도화 방안(독서시간 지정, 도서보급) - 교정시설 독서활성화(독서프로그램, 우수도서 지원) -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 방문독서지도 등 - 공공도서관내 다문화자료실, 다문화자료 수집 - 취약지역 도서보급 - 우수문학도서 보급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아프리카 등) - 지식정보취약계층 디지털서비스 확대 - 농산어촌 취약계층 e-리더기, e-book 보급 -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무료 택배,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저작권법 개정) -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3,000종), 대체자료 DB 구축 - 장애인 보조기기,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4. 도서관의 문화복지정책 분석

위와 같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도서관에서 적용되어 정보소외계층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도서관서비스는 대체자료 확충과 소외

지역에 책 보내기 운동, 시설 건립위주의 정책이며 소외계층 전반적인 영역의 통합적인 정책 결여 및 협력 정책의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특히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이용자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서구성,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



<그림 1>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 분석

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거의 없고 시설 구비와 장서구성에만 집중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대체자료의 양적 구축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는 대체자료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초기에는 점자도서(점자전자도서)의 제작 생산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비디오 및 수화영상자료

제작을 확충시키고 있다(〈표 3〉 참조). 대체자료 제작은 외부의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별로 제작한 대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통합검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체자료 신청, 예정목록, DAISY, 일반도서 상세검색 등 모두 별도의 DB로 구축되어 있어 통합검색의 오류가 많은 실정이다.

〈그림 2〉의 윗 화면은 DAISY도서의 목록이

〈표 3〉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대체자료 제작 현황

대체자료	형태	2003-2006	2007	2008	2009
전자점자도서	PDF	3,416	305	286	299
	VBF	-	-	731	107
	BBF	-	-	62	-
점자도서	-	50	116	-	-
화면해설비디오	-	-	-	-	4
수화영상	-	-	20	20	50
총계	5,466	3,466	441	1,099	46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9)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 통합검색(<http://able.dibrary.net>)

며, 아래의 화면은 통합검색의 화면이다. DAISY (음성도서)의 '교육의 철학과 역사'라는 대체자료는 대체자료 통합검색에서 검색결과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에만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용과 정보검색 및 정보활용에 웹 접근성 구축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

정보소외계층 정책은 단일화 된 정책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정보소외계층 중 장애인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다문화, 병영, 재소자, 소외계층 어린이 서비스는 도서관 진흥팀에서 각 도서관에 관련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단기적인 프로젝트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3 단기적 사업 중심의 소외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발

최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으로 정책업무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외부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문화소외지역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 등과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의 활동, 교정시설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 독서활동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농어촌학교, 작은도서관 등

독서활동 집중지원 사업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과 사서 중심의 독서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독서라는 주제로 외부기관과 소외계층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단기적 지원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4.4 시설건립 위주의 정책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건립확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정보누리터 설립 확산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공공도서관내 다문화 자료실 조성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수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에 문학도서 보급사업과 교도소도서관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지원, 병영도서관에 우수도서 지원 등의 장서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자료실 등과 장서보급 사업 등 양적인 시설과 장서의 확충으로 취약계층에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사서가 필요한데, '순회사서'라는 명칭으로 단순한 운영인력을 수급하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4.5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협력체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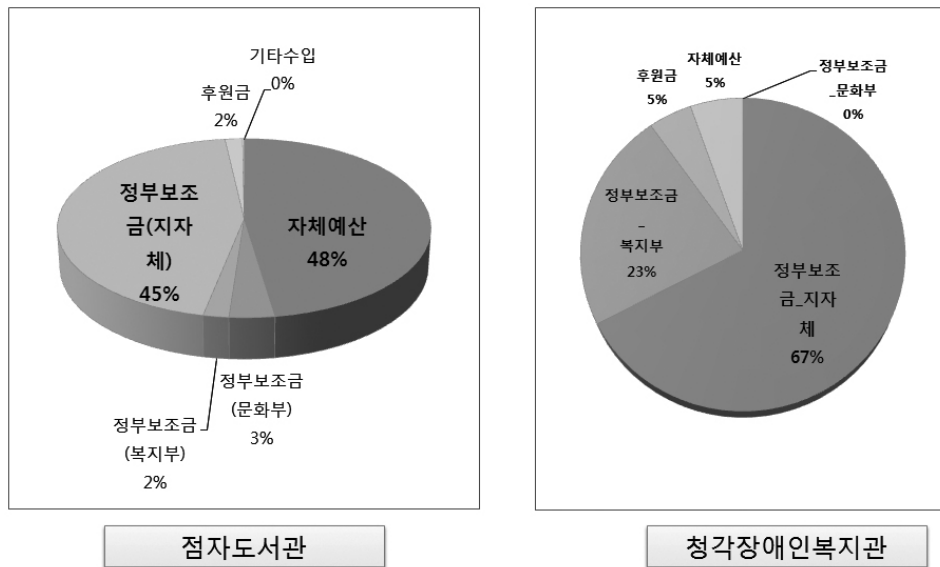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는 1980년대에

시작된 반면에 이미 1969년에 민간영역의 한국 점자도서관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2009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39개의 민간 점자도서관과 5개관의 청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점자도서관 3%, 청각장애인복지관 0%)은 거의 없으며, 자체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

다(〈그림 3〉 참조).

〈표 4〉의 장애인도서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사서직 보다는 사회복지사와 점역사가 대부분이다. 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이 위주이고 사회복지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 중심의 서비스 보다는 복지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간 영역 장애인도서관의 국가지원이 미약하고 복지성격이 강한 장애인도서관



〈그림 3〉 장애인도서관 예산지원 현황

(출처: 2009년 전국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표 4〉 장애인도서관 직무분석

장애인도서관	직무						평균
	사서직	점역사	사회복지사	사무직	기타		
점자도서관	30개관(36명)	26개관(82명)	25개관(50명)	21개관(42명)	17개관(103명)		8.5명
청각장애인복지관	0개관(0명)	3개관(17명)	4개관(67.2명)	2개관(6명)	1개관(1명)	4개관(70명)	40.3명
특수학교	3개관(3명)	12개관(12명)	7개관(7명)	4개관(15명)	5개관(31명)		0.5명

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로만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협력 구축망을 제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적, 물적 지원의 환경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5.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인 장애인, 다문화, 재소자, 병영을 위한 정책이 도서관법 개정이후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간의 협력 정책은 부재하다. 또한 양적인 시설 건립과 대체자료 제작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소외계층 정보복지 및 문화복지 서비스의 부재로 외부 프로젝트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5.1 문화복지 도서관정책 부서 신설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심 정책을 별도의 조직과 업무로 이루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문화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과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소외계층)활성화 지원업무가 별도로 있으며, 체육국에는 장애인문화체육과가 별도의 조직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분야의 정책은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도서관법 제도개선과 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장애인도서관 정책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진흥팀에서 맡고 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연계 정책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수급자, 농촌거주자, 병영, 재소자, 병원환자 등의 이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과 상호연계정책 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복지 도서관 정책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5.2 사회통합적 정보소외계층 도서관정보 서비스 정책

현재 도서관정책은 장애인실, 다문화자료실 등 공간분리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 격리정책은 이용의 편리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용하는 자료의 다양성이 있을 뿐 공간분리는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물리적, 가상적 공간의 통합을 기반으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3 실질적인 협력체계 강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학교 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체자료의 중복제작 방식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 도서관에 공공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분야별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작 중심의 업무와 서비스 중심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개발시켜야 한다.

5.4 정보이용자 중심의 자료 및 서비스 개발

정보소외계층 이용자 연구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체자료 제작 및 포맷의 표준화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분산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비하고 웹 검색 인터페이스 개발 및 웹 표준화 준수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병영, 재소자 등 이용자 특성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도서관현장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전문가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자료실 등 정보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는 반면에 이들을 위한 전문인 양성과 서비스 전문가 활용에는 소홀하다. 시설과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의 특성을 알고 이들을 위한 장서관발 및 도서관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사서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기

존의 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보소외계층 서비스의 지속적인 계속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평가에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제시가 필요하다.

6. 결 론

도서관법 개정(2006)이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정책의 노력은 '문화복지'를 표방하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정책이 미비함에 따라 도서관 영역별 및 소외계층 영역별로 산발적으로 장서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설 확충 및 자료의 양적인 확산과 단기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보소외계층의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정보이용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위 도서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역적으로 관련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장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전문적인 정책의 개입이 되어 통합조정과 전문성을 개발시켜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안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의 신설과 그 활동을 제언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숙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97-123.
- 국립중앙도서관. 2009. 『2009 전국도서관장애인서비스 현황 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_____. 2009.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_____,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 김세훈, 조현성.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1. 『2011년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미간행.
- _____. 2009.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통계』.
- _____. 2009. 『노인통계』.
- _____. 2009.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전재봉. 2002. 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157-173.
- 이정연. 201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제2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포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2011.1.21.
- 최종혁 등. 2009. 문화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145-180.
- _____.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2007, 2008, 2009. 『문화정책백서』.

